

사랑·모험·소망·상상... ‘추억의 동화’ 속으로

광주시 동구 충장로가 닷새 동안 ‘추억의 동화’ 세계로 빠져든다.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15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개막했다.

올해 축제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며,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사랑·모험·소망·상상 등 동화적 요소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판타지 뮤지컬 형식으로 구성된 개막쇼에는 가수 김광진, 장윤정, 김장완밴드 등이 출연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금남로 일대에는 ‘추억의 동화마을’과 행정동별로 특색을 담아 만든 기념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거리에는 각종 행사 부스와 푸드트럭이 설치됐으며 ‘충장 프린즈’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 엘리스 놀이터, 반짝이 가면 만들기, 바다그림 그리기 등 상설 체험행사 등도 개시됐다.

이번 축제는 ‘세대가 함께 즐기는 거리축제’를 표방

하며, 일자별로 다양한 주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아시아 문화의 날’이 열려 아시아 각국의 전통무용과 의상, 퓨전공연이 펼쳐진다. 거리에서는 ‘K-뷰티 헤어쇼’와 ‘한복 패션쇼’가 이어지며, 외국인 참가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컬처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이날은 아시아 각국의 이주민과 유학생들이 이주민·유학생이 직접 기획한 국가별 홍보·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아시아 컬처 스트리트’ 행사도 열린다. 금남로에서 거대한 주사위를 굴러 이동한 칸에 적힌 국가별 놀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충장 부루마블’ 등 행사가 준비됐다.

17일은 ‘가족의 날’로 지정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집중된다. 오후에는 어린이들이 노래, 춤, 연극,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는 ‘행복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댄스 버스킹 경연을 펼치는 ‘열정 한마

당’ 행사도 열린다. 아간에는 금남로가 ‘댄스 파티’의 장소로 변한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DJ와 댄스 가수들이 무대를 마련하는 ‘충장 발광 나이트’가 열려 DJ 카주쇼타임, DJ 사우스하이, DJ 크리스탈, DJ 하니 등이 무대에 오른다.

시민이 직접 만든 주먹밥을 나누는 주먹밥 콘테스트 ‘손으로 맛나는 추억’도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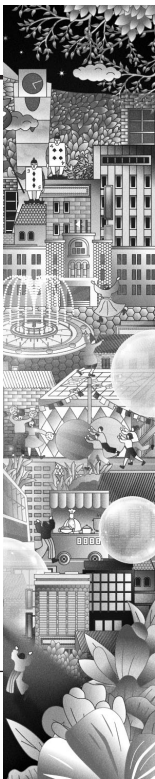
이번 축제는 예년과 달리 행진을 두 차례에 나눠



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말인 18일은 ‘행진의 날’ 첫 날로, 롯데월드 퍼레이드팀이 초청돼 금남로를 따라 대형 거리행진을 선보인다. 각 행정동과 동아리, 시민 공연팀이 함께 참여해 화려한 불거리를 연출하며 충장로와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는 거리버스킹, 마임, 복싱대회 등 참여형 행사가 이어진다.

폐막일인 19일에는 ‘행진의 날 II’와 함께 축제가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19일까지 충장로·금남로 일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날은 주민자치 페스티벌과 전국 경연 퍼레이드가 열리며, 캐릭터 분장을 한 시민들이 도심을 행진한다. 저녁에는 피날레 공연과 불꽃쇼가 금남로 하늘을 밝힐 예정이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 동안 신서석로 일대에서는 학교, 분식집, 오락실, 사진관, 다방, 문구점 등 추억의 공간들을 되살린 ‘추억의 테마거리’가 운영되며 ‘추억 유랑단’ 공연, 예술의 거리 ‘인생 최고의 대로’ 체험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행사 부스와 푸드트럭은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운영돼 매일 밤 10시까지 이어진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충장축제는 추억과 동화라는 두 가지 감성을 결합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형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창역새’·‘광산세계야시장’·‘다북다북 책축제’·‘굿모닝 양림’

광주, 가을 축제에 물들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광주시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진다.

광주시 서구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영산강변 일대에서 ‘제10회 광주서창역새축제 개막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개막식은 ‘은빛 역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여행’을 주제로 지난 1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았다. 무대는 ‘유람선’ 콘셉트로 꾸며져 역새와 노을, 영산강이 어우러지는 가을 감성 여행의 시작을 상징한다.

광주서창역새축제는 오는 19일까지 4일간 영산강변(극락교·서창교, 나눔누리소 일대)에서 진행되며 나눔누리 노을530, 사운드스케이프 체험, SG다이닝, 명패라기대회, 무벽무벽역새탐험대 등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월곡동 생활권 도로(하이마트-하남농협 산정지점)에서 세계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2025 광산세계야시장’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서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인도, 터키 등 19개국 공동체가 참여해 세계전통의상 퍼레이드, 아오자이 논

라춤 등 세계문화 공연 등이 진행된다.

북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일곡제1근린공원과 일곡도서관 일대에서 ‘다북다북 책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현장에서는 ‘책과 함께 여는 북적북적한 하루’를 주제로 댄스 공연, 마술쇼, ‘내 인생의 책’ 퍼포먼스, 그림책 입체낭독 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일곡도서관 강당에서는 비룡소 문학상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최은옥 작가가 초등학생들을 만나 본인의 저서인 ‘내멋대로 시리즈 그림책’을 주제로 도서 강연을 진행한다.

남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원에서 ‘제14회 굿모닝 양림’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 주제는 ‘인문으로 양림의 숲을 이루다’로, 양림동의 역사와 문화, 인물,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취지를 담아 진행된다. 축제 기간 양림동에서는 호국·개화·독립을 주제로 한 ‘의림 양림전’을 비롯해 청년작가 15인의 작품전, 오방 최흥종 선생과 소심당 조아라의 삶을 다룬 전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축제 즐기고 수산물도 사고

수협중앙회, 18일까지 직거래장터

‘추억의 충장 축제’ 기간에 전남산 신선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마련된다.

15일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에 따르면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15~19일)가 열리는 16일부터 사흘 간 ‘제8회 전남 제철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 <사진>

직거래장터에서는 전남 바다에서 수확한 신선 수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수협 측은 전복·굴, 참돔·광어·우럭, 민물장어·홍어·멸치 등 전남 대표 어종을 비롯해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가공품 등을 풍성하게 마련해 선보인다. 수협측은 축제를 찾는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인기 요리 유튜브 김대석 셰프를 초청, 전



남산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코너도 마련했다. 수협 측은 지난해에도 축제 기간 직거래장터를 열고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관계자는 “직거래장터를

계기로 신선한 전남 수산물을 적극 알리고 할인 판매를 통해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북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국비 6억3천만원 확보

광주시 북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

북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지원 지자체가 결정된다.

올해 북구는 환경문화분야 ‘녹색이음누리길’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평소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느꼈던 불편 사항과 구청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토대로 주민들의 산책 공간인 삼각산과 군왕봉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북구는 삼각산 대포리봉부터 군왕봉까지 총 8.6km의 숲길에 등산로 정비, 나무계단 설치, 안전 로프 및 펜스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확보한 국비 6억 3000만 원에 지방비를 더해 총 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예산 편성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께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서구, 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

광주시 서구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2회째 수상했다. 서구는 지난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 품목형 상점가를 100% 지정한 점, 가족돌봄청년수당을 지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한 점, 서구형 스마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 기후환경 등 6대 분야의 행정성과를 평가해 주는 상이다. 서구는 지난 2023년에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받았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